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에 대한 비판 및 개선방안

서 혁*

〈 차 례 〉

- I. 머리말
- II. '수준'의 개념과 '단계화' 설정의 필요성
- III. 영역의 통합, 내용의 축소와 구체화
- IV. 교재와 학습량의 문제
- V. 맺음말

I. 머리말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1997년에 공포된 지도 벌써 7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을 2007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4년 12월 29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있었던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워크숍도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인제 외(2004)의 보고서 역시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작업에 속한다.

* 전주교육대학교.

주지하다시피 현행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은 초기 수립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 핵심은 소위 '수준별 교육'의 문제였다. 실제로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은 초기 시범 실시 사례에서도 부정적이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대다수임을 관련 현장 학교나 교육단체들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 요컨대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질적 운영은 그 초기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²⁾

현행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수준의 개념

② 교수·학습³⁾ 여건과 수업 운영 문제: 학생 수, 개인차 판별 곤란, 위화감 등

- 1)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과 관련한 논의들 중 대체로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1997-2000년 사이의 예로는 박영목(1997), 정구향(1998), 노명완(1999), 김대행(1997), 김상욱(1999), 김주환(1999), 이도영(2000), 이삼형(1998), 박인기(2000), 이지호(2000), 이도영(2000) 등을 들 수 있다.
- 2) 이러한 맥락에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7차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역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쟁점과 개선 방안 워크숍, 2004. 12. 29.).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총론 우선의 전면적 교육과정 개편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공감되는 분위기이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육학 전문가들의 제7차 교육과정 평가 보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다.
- 3) '교수·학습(teaching-learning)'의 용어 표기와 관련하여 '교수·학습', '교수학습', '교수 학습', '교수·학습' 등이 논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교수·학습'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수·학습'에서 '-(붙임표)'는 비록 현재 국어어문규정에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보화나 인쇄 편집 측면에서 용이하다. 현행 '· (가운뎃점)'의 기능은 열거된 여러 단위들 중에서 대등하게 묶이는 항목들을 표시하거나 —예컨대,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처럼—,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의 예처럼 같은 계열의 단어들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요컨대, '나열'이나 '동일 계열'의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오히려 '-(붙임표)'가 시각적 측면에서도 밀접하다는 것을 잘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 (가운뎃점)'의 경우 워드프로에서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편집 과정에서 제대로 호환이 되지 않는 단점은 큰 문제이다. 또한 영어의 하이픈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시에도 편리하다.

- ③ 수준의 위계화 문제, 심화보충 내용 제시 문제, 단계와 영역 구분, 심화선택 과목 문제
- ④ 교재와 학습량의 문제, 심화보충활동 문제
- ⑤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문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에서 대부분의 현장 학교에서는 심화, 보충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이인제 외(2004)에 따르면 국어과 수업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1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 역시 국어 교과서의 단원 말에 제시된 심화 보충 활동의 운영 양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특히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생 집단 편성의 적용 기준은 학기말, 학년말 성적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주요 수업 방법으로 학습지에 의존한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교수학습 여건과 주로 관련되는 위의 ②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II. ‘수준’의 개념과 ‘단계화’ 설정의 필요성

1. ‘수준’의 개념 문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출발에서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문제인 것이 ‘수준’의 기준 설정 문제이다. ‘수준’의 개념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심화, 보충’으로 대표되는 동일 학년 내의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학년 간 위계의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후자를 ‘단계’로 구분하여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논의하는 수준은 두 가지 모두를 지칭하

4)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이경화(2002), 전은주(2003), 서혁(2004), 성경희 외(2003), 이인제 외(200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며, 특히 학년 간 위계의 문제를 지칭할 때 ‘단계’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교육개혁위원회(1995)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목을 세분화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둘째로 학생들의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 교과목별 이동 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수준의 개념을 ‘학력 수준, 내용 수준, 성취수준, 관심과 흥미’로 구체화 되어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개별화(individualized and differentiated) 교육과정의 관점에서라면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급당 인원수가 30-40명에 이르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는 개별화 교육과정을 주창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나온 것이 ‘학력 수준, 내용 수준, 성취수준, 관심과 흥미’까지 고려하는 ‘광의(廣義)의 수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⁵⁾ 즉, 학습 성취도 중심의 수준을 ‘협의(狹義)의 수준’ 혹은 ‘본래적 의미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흥미, 관심’을 포함하는 수준의 개념은 ‘광의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수준의 개념을 광의로 잡은 것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단계형이 아닌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개발한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지호(2000:5-30)의 지적처럼 국어과 교육연구에서 학년별 교육 내용의 선정 혹은 위계화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7차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현실적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광의의 수준의 개념을 적용한 결과, 수업 운영의 유연성은 확보되고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과 그 시도는 확산되었을지 몰라도, 현행 초중등 국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딱히 수준별 교육이라고 내세울만한 요소는 쉽게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교사들의 부담만 증가 되었다는 현장교사

5) ‘광의의 수준’과 ‘협의의 수준’에 관한 논의는 서혁(2004)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국어과에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는 수준의 개념은 거의 대부분의 제7차 국어과 교과서들이 담고 있는 단원 말의 심화보충 학습활동에 반영되어 있다.

들의 불평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합수곤 교수를 비롯한 몇몇 국어교육학자들의 지적처럼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자칫 스스로 획일적 교육과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국정교과서 제도와 함께 상당 부분 현실로 다가온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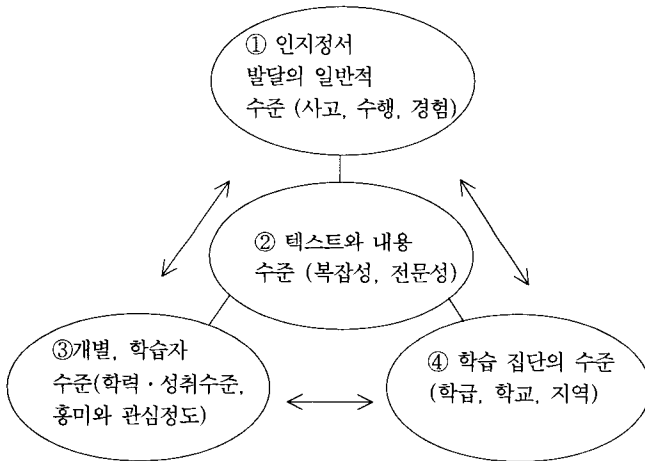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국어과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수준을 명쾌히 제시해 줄 수 있는 틀은 전문가들의 경험적 방법 이외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듯하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 구성이나 교과서의 제재 혹은 활동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국어교육학자나 교사들의 경험적 판단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경험적 판단을 문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적 판단의 축적을 통해 어떤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학습자 수준에 대한 기준들이 아직 명확하게 설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 하겠다. 예컨대 특정 학년에서 어느 정도의 국어 표현 이해 능력을 지녀야 하며, 어떠한 수준의 국어적 사고력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서혁, 2004:10)

물론 천경록(1998)과 이주섭(1999)에서는 각각 McLaughlin & Vogt(1996), Bloom(1983)을 바탕으로 '지식, 설명, 적용, 분석'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언어사용 기능의 성취 수준을 누적적, 복합적 차원에서 구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언어사용 기능 영역과 동일 학년 내의 수준 구분에는 유용한 면이 있지만, 국어교육에서의 지식의 범주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학년 간 위계 설정에는 한계를 갖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국어과의 경우 동일한 지식 내용이라 하더라도 텍스트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텍스트 변인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⁶⁾

국어교육에서 실질적인 수준별 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수준'의 개념을 <그림 1>에서처럼 ① 인지정서 발달의 일반적 수준, ② 텍스트와 내용수준(복잡성, 전문성), ③ 개별 학습자 수준(학력 수준, 성취 수준, 흥미와

6) 이러한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는 이주섭(199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관심 정도), ④ 학습 집단의 수준(학급, 학교, 지역)'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①, ②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수준 설정, ③은 교육과정상의 심화 보충 수준의 설정, ③과 ④는 지역, 학교, 학급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 실행에서 가장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수준별 교육 실천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으로는 ③, ④를 고려한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교재 개발이 필수적이며, 점인정 교과서 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 국어과교육에서 '수준'의 국면

아울러 교육과정상에서 심화 보충 내용 제시의 문제는, 현행처럼 활동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활동과 함께 담화와 텍스트의 대략적인 범주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텍스트의 유형, 소통 맥락, 방법, 수용과 창작 활동 방향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⁷⁾ 이때 텍스트의 복잡성과 사고의 깊이, 국어 문화, 텍스트의 개작과 정전 특성을 살린 정도를 비롯하여 어휘, 텍스트 구조, 지식

7) 외국의 자국어 교육과정은 우리말교육연구소(2003, 2004)를 참고할 수 있다.

과 내용, 사고의 깊이, 교양성과 (기초)전문성 등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단계화 설정의 필요성

국어과에서 심화·보충형을 택하게 된 것은 수준 혹은 단계를 정확히 제시하기 어려운 국어과의 속성상 당연한 귀결이라는 시각들이 우세하다. 학년별 내용 요소 사이의 수준별 위계화를 확보하지 못한 점과, 현실적으로 수준별 교육을 실행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의 단원 말 심화보충활동으로 대체하는 정도로 계획되었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어과 교육연구에서 학년별 교육 내용의 선정 혹은 위계화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내지 못했다는 점은,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한 이지호(2000:5-30)의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학년별 내용 수준의 위계화 문제는 학년 수준의 단계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학년 수준의 단계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3〉 학년 수준의 단계화 방안

학 년	수 준				
	안 1	안 2	안 3	안 4	안 5
초등학교 1	1	1	1	1	1
초등학교 2	2	2		2	2
초등학교 3	3				
초등학교 4	4	3	2	3	3
초등학교 5	5				
초등학교 6	6				
중학교 1	7	5	3	4	4
중학교 2	8	6			
중학교 3	9	7			
고등학교 1	10	8	4	5	6
고등학교 2	심화선택	심화선택	심화선택	심화선택	심화선택
고등학교 3					

노명완(1997)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 기간인 10년의 교육과정 수준 구분을 다음 표에 제시된 안1, 안2, 안3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현행의 안1을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안4, 안5는 필자가 논의를 위해 추가한 것이다.)

노명완(1997)에서는 '안 1'이 세분화에 따라 각 수준(학년) 사이에 중복 현상은 '안 2'와 '안 3'에서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차피 교재 개발이나 현장 교육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안 2'나 '안 3'은 자칫 무학년제나 월반 제도를 도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무학년제나 월반 제도는 엄밀히 말해 교육과정이 아닌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가능할 것이고, 국민적 정서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현행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수준의 위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자는 '안 4'나 '안 5'와 같이 2개 학년을 하나의 단계(stage 혹은 학년군)로 묶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⁸⁾

'안 4'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학교급별 구분이 된다는 점에서 학교급별 혼재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안 5'는 문자해득기인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일종의 preschool 개념을 살려서 독립시키고, 6학년과 7학년의 초중등 연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안 5'의 경우 미묘한 파장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좀 더 이상(理想)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정과 학제의 문제를 반드시 동일한 체제로 바라볼 필요도 없고, 어차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 기간이라면 현실적으로 연계성을 더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

8) 일본이나 프랑스의 교육과정에서도 2개 학년을 하나의 단계(stage 또는 학년군)로 묶어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각 단계마다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박순경 외, 2003:539 참조). 아울러 김대행(2005:31)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을 학년별로 잘게 쪼개는 것보다는 언어 발달, 성장 발달, 활동과 경험의 난이도 및 수준을 고려하여 몇 개의 큰 위계로 국어과 10학년을 재편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다른 교과와도 관계되는 일인 만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단계화는 단계별 목표 제시도 훨씬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즉, 제5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급별 목표와 학년별 목표를 함께 제시하였고,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학년별 목표의 구분 제시가 무리라는 논의를 수용하여 학교급별 교과 목표만을 제시한 바 있다. 또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현행 교육 과정에 제시한 학교급별 목표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초·중·고 국어과의 교육 목표를 일원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그러나 학교 현장과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대략적이거나 학년별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오기도 하였다. 이 경우 1년 단위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 5’와 같은 단계화 방안은 그러한 문제점을 훨씬 줄여줄 수 있다.

만일 ‘단계화’ 방안이 교육과정 개발 측면에서 시간적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 시기상조라면, 다음에서 논의하게 되는 영역 통합이라도 최소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영역의 통합, 내용의 축소와 구체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수업 운영 측면에서 현장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학습량이 많다는 것이다.⁹⁾ 이는 현실적으로 교과서의 문제이기는 하나 교육과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들은 어떤 식으로든 교과서의 학습 목표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9)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결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인재 외(2004)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학습량이 ‘보통이다’는 반응이 더 많다는 점이다. 교사와 학생의 이러한 반응 차이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지만, ‘학습자들의 국어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 이래로 6개 영역 설정과 국어 교과서의 분책 정책은 학습자들의 국어사용 능력 신장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의 OECD 국가 대상의 국제 성취도 검사 결과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역 설정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국어사용 현상을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말하기와 듣기의 상호 교섭적 현상을 들 수 있다. 말하기와 듣기 영역을 교과서에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아울러 읽기와 쓰기 영역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말하기와 듣기에 비해서는 영역 독립성이 강한 편이다.

둘째, 영역별 내용 진술간의 중복 현상을 들 수 있다. 즉, 현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본질', '태도' 항목의 요소들은 모두 동일 학년에서 영역만 다르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원리' 항목의 상당 부분 내용 요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영역 통합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요소들이고, 실제 교수-학습의 측면에서도 그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1-듣-1]듣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 [1-말-1]말하기가 필요성을 안다.'는 '말하기와 듣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성을 안다.'와 같이 통합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본질' 항목들만을 별도로 통합하여 '언어의 사용이 인간의 필요함을 안다'와 같이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필요성' 항목뿐만 아니라 '개념, 목적, 방법, 상황, 특성'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내용 요소의 진술은 학년 간에 반복될 수도 있으며, 통합적 제시 방식이 항상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영역의 독립적 요소 설정이 필요하다면 영역 통합적 틀 내에서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다양한 영역의 설정은 내용 요소들을 아무리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내용 요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된다.

셋째, 다양한 영역 구분의 설정은 내용 요소의 중복은 영역간의 위계성이나 연계성의 수립에도 어려움이 크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 간에는 물론이고, 국어지식과 문학이 추가되면 더더욱 그러하다. 현행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매우 체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끊임없이 위계성과 연계성의 문제 제기가 되다시피한 이유도 이러한 영역의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6개 영역을 10학년에 걸쳐 체계화하다 보니 학년별 안배의 냄새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어과 교육 과정의 위계성과 관련하여) 필연적인 이유보다는 안배를 고려하여 학년별 배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어찌 보면 동시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내용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 현실성도 없고 논리성도 부족해 보인다.……학년별 위계 설정보다는 성장 발달의 단계와 활동과 자료의 난이도를 고려한 위계 설정이 보다 합리적일 듯하다. 이는 수행과 관련된 진술 위주인 교육 과정의 내용을 경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뜻도 내포하게 된다. 대체로 동화-이야기-서사-소설 등의 순서로 구체화하는 자료를 제시한 사례를 참고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의미의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성장 발달의 단계에 따른 경험의 범주와 폭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행, 2005:29-30)

요컨대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을 ‘말하기와 듣기(매체 활용, presentation, viewing 부분 포함), 읽기(viewing 부분 포함), 쓰기(pre-sentation 부분 포함)’의 3분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1, 12학년의 심화 선택도 이러한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대체로 현행 교과목 체계를 유지하되, 그 내용이나 교과목의 명칭은 미래사회와 학습자의 흥미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¹⁰⁾

10) 이와 관련하여 김대행(2005:26-27)에서는 ‘교육과정의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넷으로 나누고 개인의 성장, 문화의 계승과 창달, 주체적 문화 분석의 요소들을 연계하는 내용 편성’을 하거나 ‘말하기와 듣기를 통합하는 것이 언어활동의 총체성과 부합할 것’(31쪽)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또한 ‘언어를 실천적인 활동으로 보면 사실(fact), 의미(meaning), 과제(task), 정체성(identity)의 네 가지 속성을 지닌다. 이는 교육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지식(knowledge), 수행(performance), 경험(experience), 태도(attitude)의 넷으로 구체화된다.……실제의 교육 과정 내용을 보면 원리라고 한 것은 수행으로 설정된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보여주기(presentation 또는 발표)와 보기(viewing)는 현대와 미래사회에 서의 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내용 요소의 제시와 관련항 '본질, 원리, 태도' 명칭과 내용 요소 들도 새롭게 조정하고 명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결국 '지식'인데 현재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들로 들어가 있다. 태도 역시 '동기, 흥미, 습관, 가치'로 불필요하게 상세화한 감이 없 지 않다. 학습자들이 실제 학습, 수행, 경험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명 료화하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V. 교재와 학습량의 문제

수준별 수업 운영이 어려운 이유와 관련하여, 이인제 외(2004) 등에서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들에 따르면, 수업준비에 따른 과중한 부담,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 구안 및 자료 개발의 어려움, 학급당 학생 수 과다 등을 들 수 있다. 또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여건으로는 학 급당 학생 수 감축, 다양한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능력별 로 차별화된 수업 방법의 개발과 보급, 개관적인 수준별 평가 방안 및 도 구 마련,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적극적 노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수준별 교육의 핵심은 제도와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제도의 핵심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이다. 운영은 지역, 학교, 교사의 측 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런데 현장 교사들이 수업에서 주로 활용하 는 교수-학습 자료는 교과용 도서,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자료, 교과모임

있다. 여기에서 '수행'과 '경험'을 묶어서 '지식, 수행과 경험, 태도'처럼 제시한다면, 이 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본질, 원리, 태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과정의 내용으로서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경험되어야 할 행동의 항목과 아울러 그 의미와 관계되는 자료의 범위 등이 명시됨으로써 구성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지식과 수행, 경험과 태도가 서로 긴밀한 연관 속에서 교육의 효과를 발 휘할 수 있을 것이다.'는 진술도 참고할 만하다.

개발 자료, 연구기관이나 교육청의 개발 자료 순으로 나타난다. 교과서의 심화·보충 자료 지도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수준 구분 없이 모든 활동을 다루거나(38%), 학급 전체가 심화 또는 보충 학습만을 하는 경우(22.5%), 학생들의 자율적으로 심화 또는 보충 선택 활동을 하는 경우(23.8%) 등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실질적 심화 보충 선택의 수준별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¹⁾

수준 개념의 핵심은 학습자의 수준이고, 학습 성취 능력을 가리킨다. 이때 학습 성취 능력은 비고츠키의 이른바 '근접 발달 영역'(ZPD)이다. 이는 동일 학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차, 학교차, 지역차가 존재할 수 있다. 지역차나 학교차의 문제는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운영, 개인차는 수준별 이동 수업 내지는 개별화 교육 지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수준별 교육에서는 적절한 교재가 관건이며, 교재의 선택 개념이 핵심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교재에는 국정, 검인정 문제뿐만 아니라, 심화 보충 등의 수준별 교육에 필요한 부교재의 선택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각급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 다양한 수준별 교육 자료가 제작 배포되어 왔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정해진 단원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1차시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심화 또는 보충의 학습지 형태이다.

심화 보충 혹은 수준별 교육의 형태는 일종의 국어과 내의 재량 활동 차원에서 학습자의 수준과 학급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체계적이고 자율적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다. 현행 체제처럼 일률적으로 국정의 국어과 교과서 내에 제시된 방식은 획일적,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애초의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의도 중의 하나였던 '학습량의 축소'와는 반대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보조교재의 개발 및 인정 혹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국어과 익힘책(말하기와 듣기,

11)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가장 최근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이인제 외(2004:189-190)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기존의 이경화(2002), 전은주(2003), 서혁(2004)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쓰기, 국어지식 중심의 워크북), 문학과 읽기 중심의 자료집 등의 개발, 보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검인정제의 형식을 빌려 확대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서혁(2004:2)에서도 실질적인 수준별 교육은 동일한 교재 내에서의 '(학습)활동의 선택'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수준과 교수-학습 상황에 맞는 '교재와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교과서 내용의 학년 간, 학년 내 단위 간 내용 수준의 위계화 문제, 즉 송현정(2004)에서 이뤄진 바와 같이 균등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밀 점검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과서 개발 역시 이러한 현행 교과서들에 대한 정밀 작업 결과들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국정 교과서의 획일적 단위 구성 체제와 분량의 문제점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밖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교재에서 기본 원리 제시를 강화할 필요성, 기능 중심 체제에서 실제 국어활동 능력이나 내용 및 활동 중심 지향 방안, 타교과와의 연계성 강화 방안, 교사와 학습자의 선택 기회 제고 방안, 온전한 텍스트를 반영할 수 있는 읽기 교과서 체제, 수준별 워크북의 활성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량과 관련하여서는 초중등 학생들이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통이라고 답변한 반면에 중등 교사들은 과반수가 학습량이 많다는 흥미로운 반응을 보여준다.(이인제 외, 2004:76)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학습자 활동 중심의 수업을 전개한다면 시간 부족 문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행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심화보충 선택 활동뿐만 아니라 (초등 국어 교과서의 경우)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까지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사들만 나무라거나 연수로 해결될 성격만은 아니라고 본다. 검인정 체제를 통해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면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검인정 교과서 발행 체제는 수준별 교육에 핵심인 교재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 7차 국어 교과서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들은, 일부 단원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¹²⁾ 전술한 학습량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과서의 난이도에 대한 상시 점검 체제를 갖추고, 그 정밀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학습자와 텍스트 수준에 대한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기존에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의는 수없이 많이 논의된 바 있다. 7차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의 수립은 총론 중심의 전면적 개편의 절차를 밟아왔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의 구성은 교과별 수정보완의 형식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기는 하지만 국어과 교육과정 역시 현행 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12월말에 열렸던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워크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7차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은 애초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준의 개념, 교수·학습, 수준의 위계화 문제, 교육과정상의 심화보충 내용 제시 문제, 단계와 영역

12)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국어 내용의 수준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의 58.9%, 쉽다고 응답한 학생이 25.5%로서, 전체 80%가 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의 난이도를 보통이거나 쉽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와 교수·전문가도 마찬가지로 난이도에 대해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1.6%로, 많은 학생들이 보통 수준의 난이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3.7%,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이 31.5%로, 다수가 보통에서 다소 어려운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교수·전문가 역시 각각 63.4%, 55.2%, 64.0%로 모두 난이도에 대해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인재 외, 2004:78)

구분, 교재와 학습량의 과다 문제, 심화보충활동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는 이상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과서 단원말의 선택활동이라는 획일적 방법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7차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현실적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광의의 수준의 개념을 적용한 결과, 수업 운영의 유연성은 확보되고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과 그 시도는 확산되었을지 몰라도, 현행 초중등 국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딱히 수준별 교육이라고 내세울만한 요소는 쉽게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교사들의 부담만 증가 되었다는 현장교사들의 불평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국어교육에서의 수준의 국면은 '① 인지정서 발달의 일반적 수준, ② 텍스트와 내용 수준(복잡성, 전문성), ③ 개별 학습자 수준(학력 수준, 성취 수준, 흥미와 관심 정도), ④ 학습 집단의 수준(학급, 학교, 지역)'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년별 내용 수준의 위계화 문제는 학년 수준의 단계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학년 수준의 단계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을 '말하기와 듣기(매체 활용, presentation, viewing 부분 포함), 읽기(viewing 부분 포함), 쓰기(presentation 부분 포함)'의 3분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1, 12학년의 심화 선택도 이러한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대체로 현행 교과목 체계를 유지하되, 그 내용이나 교과목의 명칭은 미래사회와 학습자의 흥미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심화 보충 혹은 수준별 교육의 형태는 일종의 국어과 내의 재량 활동 차원에서 학습자의 수준과 학급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체계적이고 자율적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다. 현행 체제처럼 일률적으로 국정의 국어과 교과서 내에 제시된 방식은 획일적,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애초의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의도 중의 하나였던 '학습량의 축

소'와는 반대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보조교재의 개발 및 인정 혹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국어과 익힘책(말하기와 듣기, 쓰기, 국어지식 중심의 워크북), 문학과 읽기 중심의 자료집 등의 개발, 보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검인정제의 형식을 빌려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국어과 교육과정은 앞으로 질 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수정보완(부분적 개정)한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교육학 연구자들의 각종 보고서들에서 그러한 관점의 전환을 강조하는 논의가 많이 제기 됨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본 논문은 2005. 6. 20. 투고되었으며, 2005. 7.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5. 7.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부(1999),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제7차 교육과정 연수자료.
- 김대행 (1997), “21세기를 대비하는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과제”, 『21세기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수준별 교육과정』, pp. 3-22, 한국교육개발원.
- 김대행(2003),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와 개선 방향”, 한국교육과정학회 학술세미나.
- 김상욱(1999), “제7차 문학영역 교육과정의 비판적 검토”, 『함께 여는 국어교육』 41호, 전국국어교사모임.
- 김주환(1999),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1)”, 『함께 여는 국어교육』 42호, 전국국어교사모임.
- 김주환·김재춘(1998),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세미나 자료집 ORM98-4-1.
- 노명완(1997),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1세기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수준별 교육과정』, pp. 23-43, 한국교육개발원.
- 박순경 외(2002),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Ⅱ) :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순경 외(2003),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Ⅲ) :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평가와 초·중학교급간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순경·김수동·노국향 외(2001),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비교 연구(Ⅲ)』,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영목(1997), “국어과 교육의 내용 구조화와 수준 결정의 준거”, 『21세기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수준별 교육과정』, pp. 82-105, 한국교육개발원.
- 박인기(2000),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목표에 대한 검토”,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백순근·최미숙·유동엽(2000),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어 기초 학력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범국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4), 교육과정 개편 방향 공청회 자료집.
- 서혁(2000), “제7차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16집, pp. 161-18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서혁(2004),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21집, 국어교육학회.
- 성경희 외(2003),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Ⅰ): 초등학교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송현정·황희종·이은정(2001), 『2001년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국어-』, 연구보고 RRE 2001-5-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송현정(2004), “국어과 교육 내용의 적정성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오성고등학교(2001),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인적자원부 지정교육과정 연구학교 보고서.
- 우리말 교육연구소(2003, 2004),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 1, 2, 나라말.
- 이경화(2002),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15, pp. 345-370, 국어교육학회.
- 이도영(2000),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6집, pp. 57-7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병기·전제상(2000), 『제7차 초등과정 교육과정 운영실태 조사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이삼형(1998),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체문제-수준의 결정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14,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성영, 김광명, 신준식(2001), “초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18,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이인제(2003),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 탐색,” 『한국초등국어교육』 pp. 211-25, 제23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인제·정구향·문영진·조용기·송현정·유영희·이재기·민병곤(2004), 『국어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정구향·천경록·이도영 외(1997),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승(2001), “국어과 수준별 수업의 특성과 방향,” 『새국어교육』 61, pp.147-166,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주섭(1999),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청람어문학』 21집, 청람어문학회.
- 이지호(2000),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6집, pp.5-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2000),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실태조사,” 『교육과학연구』 제31집 2호(특별호),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 전남고흥고(2001),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교과목표지향 평가 방안연구』, 전남도교육청 지정연구학교보고서.
- 전은주(2003), “국어과 수준별교육과정의 실행(實行)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 11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전주덕일중 교육과정개정위원회(2002), 『교육기관과 학교간 연계체제에 의한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 정구향 외(2003),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구향(1998),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및 교수·학습 자료,”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세미나 자료집

ORM98-4-1.

정혜승(200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검토", 『교육과학연구』 32-1,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http://cat2.riss4u.net/servlet/Xml2Html?p_control_no=3007237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연구』, 박이정.

조난심 외(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CR97-34, 한국교육과정개발원 교육과정개정위원회.

천경록(1998), "초등학교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 『교원교육』 제14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pp.35-50.

한국교육개발원(1997), "21세기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수준별 교육 과정",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 구성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 『제7차 교육 과정 개정에 따른 국어과 수준별 교육 과정 적용 방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허경철(2003), "국가 수준 교육 과정 개정 방식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초록〉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에 대한 비판 및 개선방안

서 혁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준의 개념, 교수-학습, 수준의 위계화, 교육과정상의 심화보충 내용 제시, 단계와 영역 구분, 교재와 학습량 과다, 심화보충활동 구분'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의 수준은 '① 인지정서 발달의 일반적 수준, ② 텍스트와 내용 수준(복잡성, 전문성), ③ 개별 학습자 수준(학력 수준, 성취 수준, 흥미와 관심 정도), ④ 학습 집단의 수준(학급, 학교, 지역)' 등으로 구체화 된다. 학년별 내용 수준의 위계화 문제는 학년 수준의 단계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학년 수준의 단계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을 '말하기와 듣기(매체 활용, presentation, viewing 부분 포함), 읽기(viewing 부분 포함), 쓰기(presentation 부분 포함)'의 3 분체계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1, 12학년의 심화 선택도 이러한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대체로 현행 교과목 체계를 유지하되, 그 내용이나 교과목의 명칭은 미래사회와 학습자의 흥미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핵심어】 국어과 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 활동, 교과서, 성취도

〈Abstract〉

**Current Issues and Several Suggestions
Regarding the 7th National Curriculum and KLE**

Suh, hyu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point out the issues and problems of the 7th curriculum, which will be a good chance to modify the curriculum or develop a new one. The main problems of the 7th national Korean language curriculum, so-called 'Differentiated and Individualized Curriculum', are concept of level, making differentiation between levels, providing contents in curriculum and activities in textbook for the advanced or supplementary students, excess of contents in textbook, etc.

The 'level' regarding the advanced or supplementary students can be differentiated as follows, that is ① lev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② degrees of difficulties of text and contents (complexity, knowledge) ③ level of individual students(abilities in studying, achieving and difference of interest) ④ level of the studying group (class, school, district). We need to consider the concept of 'stage' which is consist of 2 grades, for example 1st grade and 2nd grade. Applying the concept of 'stage' is helpful in reducing the difficulties of making differentiation of close 2 grades. I'd like to suggest the 3 strands system in curriculum such as speaking and listening (partially including media studies, presentation, viewing), reading (including viewing), writing (including presentation).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differentiated curriculum, degree of achievement, advanced and supplementary activity